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한다

첨단 IT시스템 도입 스마트 마켓
3260억 들여 전국 최대 규모 추진
장등동 등 후보지 내년 4월 확정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 30년을 넘어서면서 협소한 부지·심각한 시설 노후화·교통혼잡·시민 민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내년 4월이면 호남을 넘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사업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컨설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르면 2032년 완공 목표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축 이전지 예상 면적은 35만㎡이며, 추정 사업비는 공사비 2300억원, 토지보상비 960억원 등 총 3260억원(국비 30%, 국비 융자 50%, 지방비 20%)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최첨단 IT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마켓으로 꾸며지며, 농산물 외에도 가공·주방용품 등을 원스톱 쇼핑하고 문화·휴식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이른바 '복합 쇼핑몰'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최적 이전 후보지 등을 담은 용역 중간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5개월 뒤인 내년 10월이면 주요 시설 건축 및 기본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완료된다.

특히 과거 사천 용역 등을 통해 이전 전제 조건을 광주 북구지역, 고속도로 IC 2km(최대 3km) 이내, 평지 25만㎡·여유 10만㎡ 면적 확보 등으로 한정된 만큼 새로운 도매시장 부지는 현 도매시장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북구 장등동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 5월 최종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부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를 신청하고, 같은 해 10월 공모 선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워낙 낙후한 탓에 공모 선정에 이어 예타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예타기간만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빠르면 2027년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개장 30년이 넘어서면서 급증하는 물동량에 따른 협소한 부지와 시설 노후화·편의 시설 부족, 대규모 신축 아파트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및 민원 폭증 등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1년 문을 연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부지면적 5만6206㎡)은 광주와 전·남·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유통망을 확보한 호남 최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물동량 대비 협소한 부지와 시설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농산물 거래량만 728t에 이르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면적은 지방 도매시장인 광주서부농산물도매시장(11만2201㎡)의 절반 수준이고, 혼잡도 등을 가능할 수 있는 거래물동량 부하율은 전국 17개 공영 도매시장 중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 17개 공영도매시장 중 유일하게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저온시설과 물류시설 및 공동배송장, 가공장 등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필수 기본 시설인 저온 저장시설만 봐도 2919㎡로, 서부도매시장(9551㎡)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도시 팽창에 따른 민원폭증도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주변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약취 민원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 체증에 따른 농산물 반입·반출 등 물류비용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도매시장측의 하소연이다.

광주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설개선 사업과 이전 사업 등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공사 기간 영업손실 등을 우려한 일부 상인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상태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더 이상 이전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결과제가 너무 많은 탓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유력 후보지는 개발조건이 까다로운 '그린벨트'를 품고 있고, 이전 이후 빈터로 남게 되는 현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아파트 중심 사업개발이나 공원 등 공영 중심 개발이나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3000억원대의 이전사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일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적절한 개발 방식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보성 오리농장서 AI 검출...전남 전지역 확산 우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지역 닭·오리 농장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흥(3일) 육용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5일·육용 오리), 영암(13일·), 장흥(20일·), 영암(22일·)에 이어 보성(25일·)에서도 AI 항원(H5형)이 검출되는 등 전남 서남해안 가금류 사육 농가로 AI가 확산하면서다.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은 지역 최대 가금류 사육 농장이 밀집한 나주로의 확산 차단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 보성을 육용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육용 오리 1만 3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인근 10km 일대 18개 농장에서도 51만 마리(닭 33만 3000마리·오리 17만 7000마리)가 사육 중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보성군 보유 소독차 13대를 동원해 하루 3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이은결 마술 강연



김근도 교수 김정은 교수 유현준 교수 서경석 MC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2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2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4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2월 25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5·18 발포명령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놓쳤다 ▶6면

클린스만호, 64년만에 아시안컵 우승할까 ▶18면

1004섬 신안의 떠오르는 3색 핫플레이스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광주 병의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의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행복원스)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후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융합기술본부
AI융합센터

